

영산강 르네상스 초석, 영산강정원

자치CEO

윤병태
나주시장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시에는 아름다운 공원 '리버워크'가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만 4조원에 육박하는 리버워크는 지난 1921년 샌안토니오강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10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후 샌안토니오시는 치수와 이수는 물론 문화와 경제 가치를 연계한 대대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시민들의 생활 공간과 문화, 상업 시설 등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2023년 기준 한 해 관광객만 1400만명에 이르는 명실상부 샌안토니오의 랜드마크로 부상했습니다.

캐나다 서부 태평양 연안에 자리잡은 밴쿠버 섬 빅토리아의 채석장. 1904년 건립된 채석장은 도시 성장 속도의 한계에 부딪히며 황량한 볼모지로 남게 됩니다.

온갖 상처 투성으로 오랜 세월 방치됐던 이 곳 '부처는 가든'은 현재는 연간 100만명 이상의 유료관광객이 찾는 정원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다양한 꽃들과 아름다운 풍경 덕에 캐나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 '로키 마운틴 국립공원' 다음으로 이름을 올리며 캐나다 대표 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나주에서도 단순히 치수사업에 그쳐 불모지에 가까웠던 곳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민선8기 나주시가 공약사업으로 내건 '영산강국가정원화' 사업이 주인공입니다.

'영산강국가정원화' 사업은 영산강 인근의 저류지 친수공간을 생태관광 자원화하고 체류형 힐링공간으로 만들어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 국가정원 지정이라는 목표도 담았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제1호)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제2호)를 넘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정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영산강은 전라남도 담양에서 발원해 광주와 나주, 함평, 무안을 거쳐 목포 하구언에 이르는 111km 길이의 국가하천입니다.

영산강의 절반(48.6km), 주요 구간을 보유한 나주시는 그동안 서울의 한강과 부산의 낙동강과 달리 영산강 저류지의 친수공간을 적극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저류지 친수공간은 100년 빈도의 홍수가 발생할 경우 넘치는 물을 가둬 두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해 놓은 구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영산강의 확 트인 전망과 유유히 흐르는 영산강의 다양한 비경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2024 나주영산강 축제'가 이곳에서 열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드넓은 면적(1.9km², 약 57만평)의 저류지는 영산강이 만들어낸 천혜의 생태습지를 품고 있습니다. 생태습지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탄소 발생을 억제하고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기능을 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

나주시는 이 부지를 녹음이 우거진 정원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시민과 향우 등으로부터 2천여 그루에 이르는 수목을 기증받아 심었습니다. 수령 120년이 넘는 팽나무 등 대형 나무도 500그루가 넘습니다.

올해부터는 정원 휴게시설에 필요한 벤치 50개를 기증받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무와 벤치 등에 기증자의 이름을 새겨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을 표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 가드너 양성하고 함께 국내·외 유명 정원 디자이너들을 초청해 런던의 습지센터, 독일의 본 저류지와 같은 세계적인 습지정원에 버금가는 나주만의 특별한 수변정원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한편에서는 홍수발생 시 물을 가두는 저류지에 정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우려 섞인 말도 나옵니다. 우리 시는 영산강 국가하천 소관기관과 긴밀한 협의와 함께 관련 전문가 자문, 국내외 사례 조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협의와 검토를 바탕으로 홍수를 예방하는 저류지 기능은 물론, 시민과 외지 관광객들이 언제나 찾아와 힐링하며 영산강의 아름다움에 취할 나주만의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영산강정원이 '500만 나주 관광시대'를 앞당기고 2천년 역사문화 유산과 함께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독자투고

폭염 속 고령자 실종 예방 관심을

최근 순천경찰서 남도파출소 관내 야산에서 실종된 고령의 남성이 경찰의 수색 끝에 구조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실종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나가 한여름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었고, 탈수증상과 온열증세를 보여 병원에 후송되었다.

자칫 발견이 늦었다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한 상황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만 18세 이상 성인 실종신고 건수는 5만3416건으로 그중 1084명, 전체의 2.05%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찰청에서는 실종신고 발생 시 최우선으로 실종자 휴대폰에 대해 위치추적을 하고 있고, 순천경찰서에서는 자체 특수시책으로 선제적 실종예방 활동을 위해 가족의 신청을 통해 스마트태그를 지급하고 있다.

스마트태그는 실종자의 위치를 가족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휴대폰이나 귀

중품에 부착한다. 위치추적은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고령의 어르신들은 혹여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외출 시 필히 휴대폰과 충분한 생수를 지참하고, 가족들에게 행선지를 미리 알려두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실종 위험에 노출된 부모를 둔 자녀들은 예방수칙을 미리 숙지하고 최근 급증하는 고령자 실종 예방에 더욱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시길 당부한다.

주춘영 <순천경찰서 남도파출소장>



기고

김지환 광주교통공사 경영본부장

대·자·보 도시

'광주G-패스'로 날아오른다

지난 7월, 강기정 시장이 2030 광주 대 전환을 선포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고 일자리 체질을 바꾸는 '산업'의 변화, 교통망 연결과 일자리 창업으로 사람과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의 변화, 승용차 위주에서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으로 '일상'의 변화를 펼쳐 새로운 광주로 발돋움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그렇다. 광주는 도약하고 있다. 민선8기 들어 도시철도 2호선의 순조로운 건설, 복합쇼핑몰 3종 조성 확정,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캐스퍼 EV 출시까지 대규모 사업들이 잇따라 열매를 맺으면서 지역 전체에 생기가 넘친다. 최근엔 국회에서의 '광주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펼쳐 광주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기도 했다. 이와 같이 쏟아지는 성과 속에 연간 도시이용인구 3000만 시대의 꿈도 성큼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다. 이는 더 빛나는 내일을 향한 시민들의 갈망과 광주시의 진심이 모아진 결과다.

광주 대전환 중 '대·자·보 도시' 구현은 이러한 광주의 비약에 날개를 달아줄 중요한 프로젝트다. 특히 광주형 대중교통비 할인정책 '광주G-패스'가 눈길을 끈다. 광주G-패스는 국토부가 실시하는 전국단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에 광주만의 혜택을 추가하는 정책이다. 현재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일반 성인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까지 이용요금을 돌려주고 있다. 이용 방법은 K-패스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면 되고,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K-패스 회원으로 전환하면 사용하던 카드 그대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광주시민들은 더 큰 혜택을 받게 된다. 광주시가 K-패스보다도 할인을 대폭 높인 '광주G-패스'를 내년 초에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K-패스가 청년층을 19~34세로 지정하는데 반해, 광주G-패스는 39세까지로 연령 기준을 높인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은 반값으로, 어린이는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각 계층별 맞춤 혜택으로 대대적인 교통 복지를 실현, 누구나 자유롭게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

는 시스템을 전격 도입하는 것이다.

광주G-패스는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된다. 고물가 시대에 교통비를 20%에서 반값, 혹은 전액까지도 할인할 수 있다는 것은 가계 부담 완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특히 학생과 직장인은 물론, 운전이 힘드신 어르신과 차량 보유가 부담되는 저소득층에게는 단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이동권 확보 차원의 복지 혜택으로까지 볼 수 있다.

또한 광주G-패스는 지역 발전의 윤활제가 된다. 광주G-패스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지면 지역의 교통정책 역시 대중교통 위주로 무게중심이 옮겨져, 도로 혼잡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연결된다. 이와 함께 각 교통수단이 촘촘하게 연결되며 교통 결절점, 부도심이 부각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상업, 문화예술, 교육 등이 성장하는 도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결국 광주G-패스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는 광주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지역민 누구나 행복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주G-패스는 저탄소 녹색 도시를 견인하는 미래 가치가 된다. 광주시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0% 정도가 수송 분야에서 나온다. 승용차 이용을 일주일에 하루만 줄여도 연간 445kg의 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한다. 특히 도시철도의 탄소배출량은 승용차 대비 1/9 수준이다. 우리의 땅과 하늘은 미래의 후손들에게 빌려온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 실천은 미래 세대에게 맑고 깨끗한 환경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소중한 약속이자 의무다.

현재 조속한 광주G-패스 도입을 위해 광주시가 각 유관기관과 함께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광주교통공사도 광주G-패스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를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동력원은 바로 '시민의 참여'다. 시행 초기에는 약간 낯설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와 이웃과 미래를 위해 대중교통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자·보 도시를 향해 광주시민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싸목싸목 걸어가보자.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